

나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는 미국 서부로의 여행



세도나의 풍경

LA행 항공권 구매와 동시에 4개월간의 여행 준비가 시작되었다. 영어로 10초도 말 못하는 영어 왕초보지만 버스를 타고 가이드를 졸졸 따라다니는 여행은 사절이었다. 오픈카를 타고 우리만의 일정으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광활한 미 서부를 활보하고 싶었다. 수많은 웹사이트를 통해 여행 정보를 얻고 편리한 예약시스템을 통해 차량과 숙소를 준비하고 입국 심사 및 최소한의 대화를 위해 2개월간의 단기 영어를 마친 후 드디어 출발일이 다가왔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으나 출발부터 순조롭지 않다. 무언가에 홀린 듯 가장 중요한 미국 비자를 안 챙겼기 때문이다. ESTA를 통해 가까스로 비자를 발급받아 LA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으나 라운지에서 여유로운 휴식과 면세점에서의 폭풍 쇼핑은 고사하고 가족들의 욕만 한 바가지는 먹어야 했다.

14박 15일의 미 서부 여행 일정

미국 내 은퇴자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 San-Diego

LAX 공항을 경유하여 라디오에서 나오는 'Uptown Funk'를 흥얼거리며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휴양도시 샌디에이고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여행지는 아니나 한 해 방문객 수가 샌프란시스코보다 많을 정도로 미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이다. 사시사철 쾌적한 기후와 태평양을 마주하는 아름다운 해변 그리고 다양한 레저시설을 갖춘 샌디에이고는 긴 비행시간으로 지친 우리 여행의 출발지로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숙소에 여장을 풀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15일간의 긴 여정 동안 필요한 식료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코스트코이다. 미국의 코스트코는 어떨까? 사소한 것도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 여행의 매력이 아닌가 싶다. 생각만큼 싸지는 않았으나 현지 가격으로 샀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Hotel del Coronado' 호텔로 유명한 코로나도 비치로 향했다. 아름다운 해변과 쾌적한 날씨만으로도 우리를 설레게 하는데 예상치 못한 지역 방송사의 야외 공연 리허설이 진행 중이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접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나다니... 공항에서의 비자 실수를 어느 정도 만회한 것 같아 마음이 가벼워진다. 언어 문제 등 걱정이 많았지만 예상보다 순조로운 출발이다. 이제 숙소로 돌아가 짐 정리하고 내일 일정을 준비하는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저 뒤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이상하게 우리를 계속 따라온다. 이런! 불행히도 사이렌은 우리를 향한 것이다. 경찰의 지시대로 차를 세운 후 말로만 듣던 '손 머리 위로'를 했다. 잔뜩 겁을 먹고 경찰관의 말에 집중하니 차량의 라이트가 꺼져있어 의심 차량으로 생각되어 검문한 것이라 한다. 우리는 여행 첫날이라 실수한 것이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다짐을 한 후 무사히 풀려났다. 문제는 없었으나 가족 모두 많이 놀랐다. 그러나 고마운(?) 경찰 덕분에 안전벨트하기 싫어하는 아이와 실랑이하는 일은 여행 내내 없었다(경찰의 지적사항이었다)



샌디에이고는 4,000종이 넘는 동물원, 세계 최대의 해양공원 SeaWorld, 서부의 스미스소니언(Smithsonian of the West)이라 불리는 발보아 공원(Balboa Park) 등 가족 친화적인 관광지로 유명하다. 그중에서 우리의 선택은 레고의 끝판왕 레고랜드(Legoland)였다. '놀이공원을 굳이 가야할까?' 하는 나의 주장보다는 아이의 목소리가 더 컸다. 레고로 만든 거대한 조형물뿐 아니라 레고로 만든 것 같은 놀이기구, 아담한 워터파크, 심지어 다양한 해양생물을 볼 수 있는 아쿠아리움까지 기대 이상으로 레고랜드에는 많은 볼 거리와 놀 거리가 있었다. '그래서 3 DAY-PASS가 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내일 일정도 레고랜드로 급 변경하였다. 숙소 오는 길에 들른 라호야(La Jolla) 해변에서 만난 물개와 바다사자가 동물원과 SeaWorld의 아쉬움을 달래주었다.

샌디에이고와의 아쉬운 작별을 한 후 우리가 향한 곳은 기(氣)의 도시 세도나(Sedona)이다. 세도나로 향하는 중간 기착지로 피닉스를 선택했는데 세도나와 가까운 지리적 특성도 있지만 한 번은 가보고 싶었다. 학창시절 찰스 바클리, 케빈 존슨 등이 맹활약한 피닉스 선스의 향수 때문이 아닐까 싶다.

God created the Grand Canyon, but lives in Sedona

기(氣)의 도시 세도나(Sedona)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는 보텍스(Vortex, 강력한 에너지가 분출되는 곳) 21군데 중 무려 5개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아침 일찍 피닉스에서 I-17 고속고도를 따라 북쪽으로 2시간 달려 도착한 곳은 종 모양의 붉은 사암으로 유명한 세도나의 대표적인 보텍스인 벨락(BellRock)이다. 구름 하나 없는 파란 하늘과 거대한 붉은 사암의 이국적인 풍경에 우리 가족은 말 그대로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여러 vortex 지역을 이동하며 아름다운 광경을 담는 것도 좋지만 여유롭게 거닐며 세도나의 경치와 vortex의 기를 음미하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기엔 걷기 싫어하는 아이를 잘 설득하여 1시간 반 가량의 트래킹을하기로 했다. 새롭게 펼쳐지는 풍경, 새파란 하늘 그리고 신비로운 에너지와 함께여서인지 걸을수록 힘이 난다. 아이도 처음과 다르게 표정이 밝다. 뛰기로 하고 바닥에 그림도 그리고 준비해 온 줄넘기로 인증 동영상까지 찍을 정도로 잘 적응해주어 고마웠다. 벨락 끝까지 올라가서 골든벨을 울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잘못하면 여행을 접을 수도 있어 다음을 기약하며 벨락과의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또 다른 보텍스 지역인 Boynton Canyon을 트래킹하고 ‘chapel of the holy cross’, ‘틀라케파케 예술 공예 마을’을 둘러본 후 일몰로 유명한 에어포트 메사(Airport Mesa)로 향했다. 에어포트 메사는 말 그대로 비행장이 들어서 있는 언덕 지대로 세도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해질녘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이다. 세도나의 일몰은 빛의 향연이라 불릴 만큼 아름답기에 많은 기대를 하였으나 아쉽게도 날씨가 흐려져 기대했던 빛의 향연은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간히 비치는 햇살이 붉은 바위에 퍼져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빛깔만으로도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황홀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한통의 전화로 마무리된 라스베이가스

세도나와 작별하고 비 내리는 그랜드캐년을 둘러본 후 라스베이가로 가기 위해 카납(kanab)이라는 도시를 잠시 들렀을 때 ‘789’로 시작하는 낯익은 부재중 전화 한 통이 와 있었다. 순간 좋지 않은 일임을 직감하였다. 역시나... ‘PD수첩’ 후CM 중 마지막 7번째 CM이 송출되지 않았다는 전화이다. 장비 문제라 믿고 싶었으나 이런 류의 장애는 개발자 잘못일 가능성이 99%이다. 불길한 예감으로 카납에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햄버거를 반 이상 남겨두고 라스베이가로 날아갔다. 저녁을 간단히 해결한 후 컴퓨터를 켜고 회사에서 보내준 로그와 소스를 검토한다. 역시나 내 잘못이다. 회사에 사고 원인과 대응책을 말하는 것으로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였고 불발된 마지막 CM이 보너스 CM이라 문제없었다는 선배님의 격려도 있었지만 무거운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괜찮다고 가족들에게 말하지만 표정은 숨기지 못하는 나이에 아내도 아이도 내 눈치를 살핀다. ‘평소에 잘 돌아가다 왜 출장 기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나?’라는 원망도 들지만 누구를 탓하겠는가? 가족, 회사 모두에 미안한 하루다. 빨리 마음을 추스려야 하는데 쉽지 않다. 라스베이가의 화려한 밤은 이렇게 지나갔다(다음엔 웃으며 다시 오리!)

미국 국립공원의 시초, 요세미티 국립공원(Yosemite National Park)



LA로 돌아와 아이들의 로망인 디즈니랜드를 다녀온 후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국립공원 중 하나인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향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캘리포니아주 중부, 시에라 네바다 산맥 서쪽 사면 일대에 전개되는 면적 3,061km²의 대자연의 공원으로 1890년 미국에서 두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종자인 자이언트 세콰이아(Giant Sequoias) 서식지로 유명한 마리포사 글로브(Mariposa Grove)를 방문하였다. 우리 동네에 인천광역시 기념물 12호로 지정된 8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곳의 거목들에 비하면 우리 동네의 자라는 마치 초등학생같이 느껴진다. 세상에서 25번째로 큰 그리즐리 자이언트(Grizzly Giant)란 나무는 높이가 자그마치 64m이고 나이는 무려 1,900살 이상이란다. 2011년 이곳을 방문했을 때 셔틀버스로 돌아본 경험이 있어 편안한 여행을 기대하였으나 이상하게 셔틀버스가 보이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걸어야 했다. 아이도 이제는 익숙해졌는지 된다. 도로 옆에 길게 쓰러져 있는 죽은 세콰이아 나무의 뿌리 부분인

‘Fallen Monarch’,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나무의 가운데 부분을 터널처럼 뚫은 ‘The California Tunnel Tree’, 총각과 세 아가씨 정도로 풀이 가능한 ‘The Bachelor’ and ‘Three Graces’ 등이 유명하지만 이름 없는 세콰이아 나무들도 이 곳만 아니라면 멋진 이름이 붙여졌을 정도로 웅장하다. 현재 마리포사 그로브는 150주년을 맞아 일반 차량 주차장을 없애고 공원 내 트램 도로의 콘크리트를 모두 뜯어내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관람객 편의를 위해 부족한 주차장은 늘리고 도로는 새로 포장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2년간 완전 폐쇄까지 결정하며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무엇이 중헌디?’라는 생각을 한번 더 한다.

요세미티 절경이 내려다보이는 글레이셔 포인트(Glacier Point), 엘 캐피탄(EI Capitan), 브라이들 베일 폭포, 그리고 요세미티의 상징인 하프 돔까지 한 시야에 담을 수 있는 터널뷰(Tunnel View), 그리고 화강암 성상으로는 세계 최대인 엘 캐피탄 주변 트래킹까지 마치고 요세미티에서 약 90분 거리인 오크허스트(Oakhurst, 요세미티 주변은 숙소가 많지 않다. 물론 휴대폰도 잘 터지지 않는다)에 위치한 숙소로 돌아와 내일 있을 요세미티 벨리 여행을 준비한다.

요세미티 벨리는 무료셔틀, 유료 투어인 벨리 플로어 투어(Valley Floor Tour) 등 여러 방법으로 여행할 수 있으나 우리는 나무숲과 강, 호수 사이를 신나게 달릴 수 있는 자전거 투어를 선택했다. 아이와 2인용 자전거를 빌려 힘차게 페달을 밟는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진 않았지만 어디 가더라도 아름다운 숲, 폭포, 시내, 호수와 함께 하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개인적으로 곰 한 마리와 마주치는 추억을 만들고 싶었으나 사슴으로 만족해야 했다. 5월은 겨우내 얼려있던 얼음이 녹아 일 년 내 수량이 가장 많은 시기여서 요세미티의 아름다움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시기이다(2011년 10월, 요세미티를 방문하였을 때 숲을 거울처럼 비친다는 Mirror Lake의 수량이 거의 없어 실망한 적이 있었다). 시간의 흐름이 아쉽게 느껴질 정도로 벨리 이곳저곳을 숨 가쁘게 달린다. 서둘러야 했다. 이유는 바로 티오가 패스(TIOGA PASS)를 달리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글레이셔 포인트(Glacier Point)



Tenaya Lake

결빙으로 인해 1년의 반 이상은 도로가 폐쇄되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전날 도로가 개방되어 아쉬움 없이 요세미티 여행을 마칠 수 있어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세간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으나 지난 요세미티 여행 때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TIOGA PASS를 다시 한 번 달리는 것이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소망이었다. Olmstead Point라는 곳을 제외하고는 유명한 포인트조차 없으나 황량한 듯 거친 매력을 발산하는 도로와 황량함 사이에 도도한 자태를 뽐내는 Tenaya Lake의 아름다움 그리고 지난 여행의 설레임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싶었다. 실제로 여행 내내 나만 흥분하였지 아이는 Tenaya Lake에서 엘사공주 놀이할 때만 즐거워했고 아내는 해지기 전에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해야 한다고 재촉하였다. 그러나 TIOGA PASS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 Be sure to wear some flowers in your hair

여행의 마지막은 미국인들이 살고 싶은 도시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이다.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인 금문교를 자전거로 여행하는 것도 이번 여행의 목표 중 하나였다. 바다사자로 유명한 피어 39(Pier 39)에서 명물인 클램파우더로 간단한 식사를 한 후 금문교로 향했다. 흐린 날씨가 많은 샌프란시스코이지만 오늘날은 파란 하늘이다. 하지만 강력한 바람이 우리의 페달을 멈칫하게 한다. 가뜰이나 부실한 하체에 아이를 태우는 것도 버거운데 역풍까지 불다니, 돌아갈까를 수없이 고민하고 몇 번을 쉬어간 끝에 금문교에 도착하였으나.. 아이는 감흥이 없다. '여기가 영화 Big Hero에 나온 그 다리야' 라는 말에도 시큰둥하다. 아이에게는 그냥 커다란 금색도 아닌 주황색 다리인가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중간에 돌아갈 걸... 이라는 후회도 잠시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어찌 금문교를 방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피어 39의 명물인 클램파우더

순풍을 맞으며 pier 39에 돌아와 또 다른 명물인 케이블카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의 아름다운 언덕을 감상하기로 하였다. 샌프란시스코의 언덕은 많은 영화와 CF의 배경이 될 정도로 유명한데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도로 사이의 풍경과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도심의 모습을 감상하기에는 케이블카가 제격이다. 도착지에서 운전자와 승무원이 기계장치가 아니라 수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은 관광객들에게 난관을 선물해준다. 케이블카의 종점은 샌프란시스코의 심장이라 불리는 유니온스퀘어이다. 이 중심가에서 평일 오후 도심의 여유로움을 만끽한다. 애플의 본 고장인만큼 애플스토어도 둘러보고 역사가 녹아있는 광장을 거닐고 유니온스퀘어가 한눈에 들어오는 모습을 만끽한다.



샌프란시스코의 언덕



케이블카를 수동으로 전환하는 모습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인金門교

에 내려다보이는 카페에서 차 한 잔도 마신다. 저녁은 다양한 스테이크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어 우리나라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TAD'S STEAKS에서 1인 1스테이크로 해결한다.

10년 차 휴가의 마지막 일정으로 아이 교육 목적으로 미국 명문 사학 중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Stanford University)을 방문했다. 아이도 어리고 교육열 또한 뜨겁진 않으나 미래 수험생의 아빠로서 외국 대학 한 곳은 방문하여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잘못 갔다. 스탠포드 대학은 나나 아이에게 미국 31대 대통령인 Herbert Hoover를 기념하는 Hoover 타워는 높고, 로딩이 만들었다는 '칼레의 시민'은 "와!!"이고, 해질녘의 Memorial Court는 정말 멋진 그런 관광지일 뿐이었다. 대학의 역사, 인물 등을 공부하고 갔어야 했는데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와 아빠 친구 명재 삼촌이 나온 대학이라는 것 빼고는 아이에게 해 줄 말이 없었다. 저녁도 구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같이 먹으려 했으나 그럴 필요가 없었다. 아쉬움은 남으나 이 또한 좋은 경험이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외국 대학을 가보겠는가?^^

여행을 마치며

14박 15일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의 느낌은 허전함이다. 그토록 기다리던 여행이 끝났기에 그랬고 여행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가족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도 그랬다. 4개월여 동안 준비한 일정들이 실제 내 눈 앞에 펼쳐지니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었고 그 광경들이 눈에서 떠나질 않는다.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했다면 더 편안한 여행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그러나 여행은 역시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제일 편하고 즐겁다. 12시간의 비행과 6시간의 운전도 긴 줄에서의 기다림도 가족과 같이 하기에 힘든 줄 모른다. 그래서인지 다음 여행이 더욱 기다려지고 기대가 된다. "여보~ 다음 15년 차 여행은 밴쿠버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자구^^~" 🐶